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6. 10. 20

자 본 시 장 국  
자 산 운 용 과

### I. 모두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업 대표님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분들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금년 1월 출범 이후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의미있는 성과를 내며

시장에 안착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영화 ‘건기왕’의 크라우드 펀딩도

2시간 만에 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영화 인천상륙작전 : 관객 700만명 돌파로 25.6% 투자수익률 예정(세전)

이러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많은 상상력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들게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합니다.

#### <그간의 성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한 기업은 180건이었으며,  
이 중 84건이 성공하여,  
성공률이 47%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반타작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0%대 성공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공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5,500여명의 투자자가 138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제조업·IT·농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펀딩 성공 이후  
해외수출계약 체결\*, 후속투자 유치\*\* 등  
후광효과를 누리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마린테크노(해양화장품) : 한·미 정상외교시 현장수출계약 체결(5년 20만\$)

\*\* 모션블루(스마트블록) : 정책금융기관(IBK매칭투자조합) 후속투자 유치(10억원)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 등 14개사의 투자 중개업자가  
클라우드펀딩 기업 발굴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발전과제>

이처럼, 클라우드펀딩은 8개월간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를 잘 안착시키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클라우드펀딩 특성을 감안하여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16.6, 추경호의원안)  
-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 수단으로 광고할 경우 광고가능한 항목을 확대  
(주소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기업명, 중개업자명, 펀딩진행사실 등도 허용)

또한,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펀딩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KSM)도 조속히 개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우수기업이 클라우드펀딩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마당’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내실화하여 중개업자들이 보다 쉽게  
우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별 인정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클라우드펀딩 이용이 활발한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제혜택 등이 부여된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콘텐츠 클라우드펀딩을 위해 조성된  
마중물펀드(100억원)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문화콘텐츠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기은, 기보, 성장금융 등 관계기관의  
후속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업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월 1회→분기 1회)를 완화하겠습니다.

#### <당부의 말씀>

여름 휴가, 추석 연휴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펀딩 참여기업과 성공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등,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정부당국, 정책금융기관 및 중개업자 모두가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은행은 더 많은 기업이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소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소속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분석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우수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펀딩 초기 마중물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장금융은 보다 많은 유망기업이  
펀딩에 성공할 수 있도록  
Seeding 단계에서 적극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도  
문화산업 Seeding 투자를 위해 조성된 마중물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저희 생각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유익한 결과가 나올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II. 마무리 말씀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아낌없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현재 검토 중인 「**클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에  
잘 반영되어 완성도 높은 방안이 되도록  
직접 하나하나 챙겨보고,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펀딩 시장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를 성사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노력에 화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